PennState 한인카톨릭공동체

3 월 월보

얼마 전, 저는 박사과정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 최종심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갖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일면서 지난 4 년 반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 능력 보다는 그 외의 것들로 인해 여기까지 온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좋은 지도교수를 만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지지를 받고, 건강에 큰 문제없이 지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는 분명 하느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과정에서 힘들었던 시간조차도 지나고 나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더 나를 굳건히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하느님께 보답을 하며 살아야 할 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어떤 모습이고 그런 세상에서 저한테 어떠한 역할을 바라고 계실까요?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기에 저에게 이토록 큰 선물을 주셨을까요? 앞으로 열심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보라엘리사벳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네 한가운데 계시다. 그 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 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

스바니야서 3, 16-18.

주요 교리

하느님께서는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순 시기를 '은혜로운 회개의 때'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뉘우쳐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자비로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작은아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청합시다.

2 월 교무금	2 월 지출액	총잔액
$382.7	-	$2491.34

March 2013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바오로 구역 해리스버그 성당 방문 한인 미사 없음
3	4	5	6	7	8	9
					마테오 구역 모임 바오로 구역 모임	요셉 구역 해리스버그 성당 방문 한인 미사 없음
10	11	12	13	14	15	16
			김혜진 크리스티나 자매님 축일 고아라 크리스티나 자매님 축일	한재성 레오 형제님 축일	요셉 구역 모임	2:30 pm 교리 4:00 pm 미사
17	18	19	20	21	22	23
		양재식 요셉 신부님 축일 김희선 요세피나 자매님 축일			마테오 구역 모임 바오로 구역 모임	2:30 pm 교리 4:00 pm 미사
24	25	26	27	28	29	30
					요셉 구역 모임	한인미사 없음. 저녁 8:00 캠퍼스 부활전야미사 및 세례예식
31						
한인미사 없음. 오전 10:00 해리스버그 부활미사 참석						

공지사항

- 바오로 구역 모임: 3 월 15 일 (미정), 3 월 29 일 (미정)
- 요셉 구역 모임: 3 월 15 일 (미정), 3 월 29 (미정)
- 마테오 구역 모임: 3 월 8 일 (신 현주 프란체스카 자매님 댁), 3 월 22 (권 성태 베드로 형제님 댁)